월요광장

명창 임방울과 아시아문화전당

송 성 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예전과 달리 요즘 서점가에서 1백만 권 이상을 판매한 도서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음반 시장도 마찬가지다. 불과 20년 전인 1995년 가수 김건모 씨가 세운 3집 앨범 280만 장 판매 기록은 앞으로도 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일제 강점기 광주가 낳은 최고의 명창 임방울 선생의 음반 '쑥대머리'가 1백만 장 넘게 팔렸다는 사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임방울 선생은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과 한을 노래한 음유시인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소리 인생'을 기리고 숨겨진 소리꾼을 발굴하기 위한 제23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광주 일원에서 열려 명창들의 열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 지하철 송정역 한쪽 대합실에는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임방울 선생은 서편제 소리의 '최후의 보루'로도 불린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편제는 남도 판소리를 대표한다. 서편제는 슬픈 계면조 가락에 박자와 장단이 멋스럽고 기교가 세련된 것으로 유명하다.

빛고을 광주는 임방울 선생과 같은 전통 예술인은 물론이고 예로부터 학덕 높은 선비와 시인·묵객을 많이 배출해 예향(藝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문학과 노래·그림 등 다방면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의 면모를 꾸준히 유지해 온 광주에는 '문화예술'의 DNA가 도시 곳곳에 새겨져 있다.

'광주 비엔날레'는 그 DNA가 현대적으로 발현되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미술 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에 광주를 알리고 광주의 문화 수준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문화 수도'로서 광주의 명성을 더욱 드높여 줄 경사가 또 하나 생겼다. 지난 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연 것이다. 2005년 국책사업으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13만 5000㎡(약 4만 781평)의 부지에 연면적 16만 1237㎡(약 4만 8774평)의 규모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연면적 13만 7255㎡)과 예술의전당(12만 8000㎡)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빛의 숲'을 콘셉트로 해서 건물 천장 곳곳에 채광정을 설치해 늘 빛이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도 볼거리다.

아직 부분 개관이건만, 문을 열자마자 아시아문화전당에는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문화마켓의 중심이자 문화 생산기지가 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건만, 아직 그 안에 채워질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매머드급 규모의 전당에서 어떻게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채워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적의 지점에서 공과 배트가 만날 때 홈런이 나온다. 콘텐츠의 성공 법칙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스토리가 잘 표현되어 사람들의 호감과 공감이 만났을 때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빅 킬러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이제 막 문을 연 아시아문화전당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아시아문화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흥행의 성공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콘텐츠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확신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면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해외 소비자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곤 한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광주에서도 보게 될지 모른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글로벌 문화 메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조칼럼

초등학생 욕설에 대한 단상

정 영 주
광주지검 검사

이번 주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준법 강의를 나갔다. 강의 시작 전 교장선생님과 잠시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강의 대상이 고학년이라, 교장선생님이 고학년 학생들의 신체폭력·집단 따돌림 문제를 걱정하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언어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 대해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하셨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욕을 너무 잘해요. 저도 오랜 시간 교단에 있었지만,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에게 형법상 모욕죄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소년범의 처우 방안을 알리면서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고, 그것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잘 생각하자"고 신신당부 했다.

이에 학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럼 소년원 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하여 소년범의 경우 반성 여부,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의 정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가정 환경 등을 두루두루 살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처우하지만, 피해 회복에 대해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신당부조차도 어른들의 간섭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깐 그 뜻을 잘 모른 채 괜히 멋있어 보이거나, 뭔가 강해 보이면서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 친구들이 쓰니까 쉽게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교정이 비교적 쉽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초등학생조차도 욕설을 과하게 내뱉는 모습과 수많은 모욕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의 모습이 겹치면서 어른들이 욕을 많이 하고 어린 학생들조차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씁쓸함은 계속 남았다.

이번 초등학교 강의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의 명예감정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더불어 나 또한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하였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여부를 되돌아 보면서 어른이 먼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무겁게 느꼈다.

기 고

광주의 힘, 다정다감

정 용 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
광주U대회조직위 부위원장

지난 7일 광주에 전국 최초로 고려인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공공기관의 느낌이 나지만 순수한 민간기구다. 작년 7월부터 고려인마을후원회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한 결과로 나온 산물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광주의 기업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인 성금을 내 건립된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에 30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모여들면서 고려인마을을 형성하고, 이제 전국 최초로 종합지원센터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의 다정다감한 인정 때문이다. 2003년 3~4가구가 월곡동에 둥지를 튼 이후 최근 2~3년 동안 유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광주에 가면 잘 보살펴주더라는 입소문의 영향이 컸다.

실제로 고려인마을협동조합 이사장 이천영 목사는 사업주에 멱살을 잡히고 뺨까지 맞아가며 고려인들의 임금을 받아주었고, 고려인마을 대표 신조야씨는 한 달 5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도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고려인들의 어머니역할을 하며 정착을 도왔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LG이노텍, KEB하나은행, 농협 등 기업,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그동안 조용히 후원해 왔다. 암투병중인 80대 할머니(서광교회 조정숙권사)가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해주셨고,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내놓은 학생도 있었다.

의료보험이 없는 고려인들을 위해 여러 병원이 협약병원으로 나서 진료해주었고, 병원비나 장례비가 부족해 애태울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건물을 어렵게 매입했으나 내부공사비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적처럼 후원자가 나타나 완공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는 지역의 언론 도움도 컸다. 고려인소식을 관심있게 보도해주고 후원자들을 상찬해준 것이 견인역할을 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광주새날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중·고과정 학력인정 다문화대안학교로서 새날학교는 한국어를 못해 일반 학교에 바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받아주었다. 필자 역시 새날학교를 돕는 일을 하다가 2년 전부터 고려인 학생들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고려인마을에 본격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려인마을과 새날학교는 광주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광주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새날학교와 고려인마을에 견학, 탐방을 오고 있다.

두 달 전에 끝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도 시민들의 다정다감한 인정이 큰 요인이었다. 종합우승이나 예산절감도 대회 성공의 평가지표가 되겠지만 우리가 세계 각국의 미래 엘리트들에게 광주를 어떻게 가슴에 새겨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회장 김보곤)는 회원들이 각국별로 서포터스단장을 맡아 선수단 환영에서부터 경기장 응원, 주변 관광, 음식과 기념품 제공, 다시 환송까지 해주어 많은 선수들이 송정역에서 석별의 눈물을 흘리고 가게 했다. 9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교회나 마을단위로 나온 서포터스들이 정성을 다해 선수들이 가슴으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다. 그 효과 때문인지 벌써 방글라데시 등 몇 나라에서 광주의 의료시스템과 산업협력을 위해 다시 찾고 있다.

이렇듯 우리 광주가 가진 자산은 다정다감한 인정이다. 그동안 민주, 인권, 평화라는 대의명분에 몰두해 우리가 가진 남다른 달란트를 제대로 표출하고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이든 방영되고 있는 한국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비결은 인간의 깊은 정을 어떤 것보다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외국인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도의 정이 으뜸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도 다정다감한 사람들이었기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빛의 도시라고 자부한다. 빛은 세상을 밝히기도 하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도 한다. 그동안 민주도시로서 세상이 나아갈 빛을 밝혔다면 이제 세상을 따뜻하게 할 빛을 발산했으면 좋겠다. 다정다감, 그것이야말로 광주가 온축해 온 자산이고 미래의 힘이 될 것이다.

무슬림 대상 '할랄 농식품시장' 육성 시급

세계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5조 달러로 반도체나 자동차산업보다 큰 거대시장이다. 이 가운데 무슬림(이슬람교인)을 대상으로 한 할랄 농식품시장은 2019년에 2조53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랄(Halal)은 야채와 과일, 곡류 등 비(非)육류성 식품과 해산물로,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하람(Haram)은 돼지고기, 피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 동물의 고기, 곤충 등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무슬림 인구가 약 6억4000만명으로 동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이슬람국가들의 소득도 꾸준히 성장하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양질의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또한 유럽 등 비이슬람권에서도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할랄식품은 '믿을 수 있는 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주목받고 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발전과 식품의 수출확대 차원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식품업계는 이슬람문화에 대한 생소함과 까다로운 인증절차 등으로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은 미약하다.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선제적인 시장개척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무슬림은 습관적으로 제품 구입 시 할랄 인증을 확인하고 할랄 로고가 없을 때에는 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관련기관에서는 할랄 인증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식품 제조업자는 소비행태 등 특성을 파악하고 무슬림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농식품 개발해 새로운 소비자를 확보하고 다변화된 수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셋째, 관광산업에서는 음식을 문제로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할랄식당 확대와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선하는 등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박정석·농협안성교육원 교수

社 說

'고품질 전남 쌀' 홀대 농림식품부 탓 아닌가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 더 좋은데도 가격은 경기미에 못 미친다. 이에 대해 농림식품부는 '경기도 쌀이 좋다는 소비자 선호도 때문'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황주홍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쌀 가격 및 품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무안 '고향의 향기미' 10㎏ 짜리 한 포대가 2만5000원에 팔렸다. 이는 경기도 여주 '대왕님표 쌀' 3만4500원보다 9500원이나 싼 것이다.

하지만 전남 쌀의 품질은 훨씬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롯데상사가 무안 쌀과 여주 쌀에 대해 겉모양(싸라기·백도)과 성분(단백질·수분 함량), 그리고 밥맛 등을 분석한 결과 무안 쌀은 종합 92.0점을 받았다. 반면 여주 쌀은 86.0점에 그쳤다. 더불어 지난해 농림식품부 선정 '고품질 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전남 쌀은 5개나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시중에서 전남 쌀이 저평가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림식품부 측은 "소비자들이 '여주 쌀은 명품'이라는 선입견으로 다량 구매하는 바람에 높게 책정됐다"고 했다는 것이다. 입소문만으로 쌀값이 책정되는 실정을 방관하는 당국의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농협이 작년 매입한 전남 쌀(40㎏) 가격은 5만1436원으로 경기 쌀 6만5000원보다 1만3564원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애초 농협의 매입 가격에 따라 시중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어 농림식품부의 변명을 머쓱하게 한다.

고품질 전남 쌀이 홀대받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세워야 할 농림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는 책임이 크다. 한시바삐 공정한 가격 토대를 만들어 쌀 농가의 올바른 소득 보장과 함께 농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 '나들가게' 사후관리 대책 있어야

'나들가게'는 '정이 있어 내 집 같이 드나들 수 있는, 나들이하고 싶은 가게'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청이 5년 전인 2010년 1월 대형 할인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를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마련한 명칭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나들가게에는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이 따른다. 1억 원 한도에서 점포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과 나들가게의 브랜드 및 정보화를 위한 간판교체 및 POS기기 및 시스템 설치 등의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들가게의 폐업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나들가게 수는 지난 6월 현재 375개로 3년 사이 90개가 줄었다. 2012년 465개에서 2013년 418개, 2014년에는 412개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폐업률이 높은 것은 나들가게 지원이 개점 초기에 집중됐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로는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책적으로 점포 수를 늘리기 위해 개점 초기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영업 경쟁력 제고에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나들가게 지원은 심사를 강화하여 조건부 지원이나 생존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골목상권 분석에 따른 경영전략 개발 등 보다 정교한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동네상권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은 골목까지 치고 들어와 지역경제 생태계를 유린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확대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無 等 鼓

담양 대나무박람회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에는 '나모(나무)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라는 대목이 나온다. 대나무는 나무일까, 풀일까? 조선시대에도 헷갈렸던 문제지만 수백 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질문이다.

일반인이 볼 때 겨울에도 죽지 않고, 단단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나무로 생각된다. 생활용품이나 건축자재로까지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장구한 세월동안 '대풀'이라 부르지 않고 '대나무'라 이른 것을 봐도 나무가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식물 분류체계상 대나무는 의외로 벼과에 속한다. 식물학에서는 물관과 체관 사이의 부름켜(형성층) 유무로 나무와 풀을 나누는데, 대나무는 부름켜가 없기 때문에 풀로 분류하는 것이다. 상식선에선 나무도 맞고, 풀도 맞다. 하지만 학교 숙제라면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풀이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다.

대나무는 무엇보다 곧게 자라는 특성 탓에 사군자의 하나로서 절개를 상징했다. 아래로 숙인 잎과 텅 빈 속은 겸손과 무욕을 뜻해 선비의 나무로 여겨졌다. 잘 자라는 죽순은 왕성한 번식과 생명력으로 해석돼 정원수로도 인기였다.

무속신앙에서도 대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로 여겨져 무속인 집에는 대나무를 심거나 세워 두었다. 특히 동양 전설에서는 봉황이 유일하게 먹는 것이 대나무 열매인 '죽실'인 것으로 전해온다.

며칠 전 죽향인 담양의 죽녹원을 찾았다가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대나무 이곳저곳에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자식들의 키가 쑥쑥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크게 성공하라는 뜻에서,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쓴 것이란다. 오죽하면 이름을 새기지 말라는 푯말까지 세웠을까? 하지만 푸르고 윤기 나는 대나무에 볼펜이나 칼로 생채기를 내는 행동이 자녀에게 무슨 복(福)을 불러오겠는가?

오는 17일부터 10월말까지 죽녹원 등 담양 곳곳에서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가 열린다. 담양군이 개최한 행사지만 광주시민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고 한다. 이웃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한 번쯤은 담양으로 가을 나들이를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